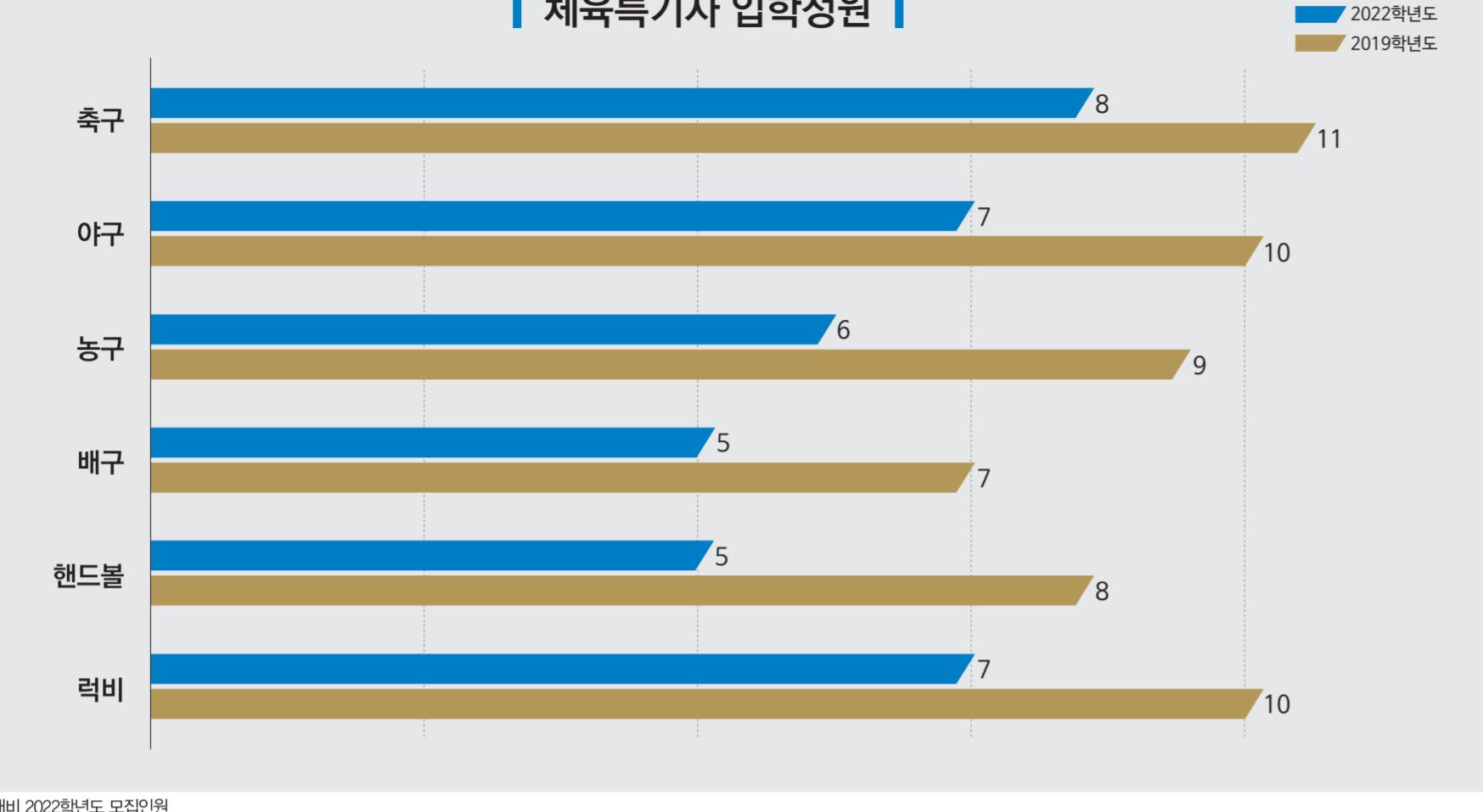


체육특기자 입학정원



체육특기자 정원 감소, 진통 겪는 '체육대학'

이동건 기자 ehdrijs3589@knu.ac.kr

축구부 모집인원 감소

저학년 대회는 참가도 불가

우리학교 축구부는 올해 국가대표에 선발된 정우영, 고승범, 강상우, 김진수 등을 배출한 축구 명문이다. 2002년 월드컵 멤버인 이운재, 현 K리그1의 감독인 남기일, 박건하 등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 같은 선수들도 우리학교 축구부 출신이다. 또한 대학축구 U리그의 초대 우승팀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축구부는 더 이상 축구 명문의 계보를 이어 나가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학 축구팀은 완전한 전력을 구축하기 힘든 구조다. 재학 도중 프로로 진출하는 선수들과 축구를 그만두는 선수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신입생 모집을 통해 두꺼운 선수층을 구성하는 것만이 대학 축구팀이 한 시즌을 온전히 치를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학교 축구부는 선수 부족으로 인해 이번 시즌 치러지는 1, 2학년 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명 명단 자체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축구부 김광

진 감독은 "현재 인원이 부족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적은 정원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누군가 그만두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감독은 "전주대와 같은 지방대학 선수들도 알고 있을 만큼 심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성균관대 축구부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3명은 돼야 축구팀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축구부 주장 오영빈(스포츠지도학 2020) 선수는 "대회를 나가게 되면 이를 단위로 경기가 연속적으로 있다.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부상자가 나오거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훈련을 할 때 선수 구성이 맞지 않아 힘든 부분이 있다"며 "선수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도 하고 부상자가 생길 수록 팀이 힘들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원 부족 문제는 선수들의 프로진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쉽게 팀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축구부 김상훈(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는 "아무래도 팀의 시장을 알다 보니까 프로 도전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 "현재 정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한 선

수 한 선수가 너무 소중하다"며 "다른 팀과 비교해 선수도 많이 부족하고, 부상도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축구부의 상황은 타 대학 선수들도 알고 있을 만큼 심각했다.

우리학교 축구부는 2019년도를

A씨는 "수도권 팀들 중에서도 특

히 경희대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들었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인원

부족 문제는 축구팀 입장에서 최악

의 상황이다. 부상자라도 생기면 경

기에 참여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

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2017학년도와 2018학

년도 수시모집 실기우수자 축구 전

형에서 12명, 2019학년도에는 11명

의 선수를 선발했다. 그러나 2020학

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7명의 선수

를, 2021학년도 모집에서는 6명의

선수만을 선발하는 등 모집인원이

크게 감소했다. 2022학년도에는 모

집인원이 8명으로 증가했으나, 2019

학년도 이전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치였다.

2022학년도 우리학교 축구부는

축구부를 둔 주요 대학인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리카)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

▲아주대 ▲광운대 중에서 두 번째

로 적은 인원을 모집했다. 2022학년

도 신입생 모집에서 성균관대가 7명을 뽑아 가장 적은 인원을 선발했다. 이어 우리학교가 8명을 모집했고 연세대, 한양대(에리카), 단국대, 광운대는 9명, 고려대, 아주대는 10명, 중앙대는 11명을 모집했다.

우리학교 축구부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4년간 32명의 선수를 선발했다. 그러나 김 감독에 따르면 이번 시즌 전체정원은 22명뿐이다.

체육특기자 전체정원 감소

2019학년도 이후 20명 이상 감소

체육특기자 전체에서 모집인원이 감소한 종목은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었다. 농구부는 2019학년도에 9명을 선발했고 2022학년도에는 6명을 선발했다. 이와 동시에 야구부는 10명에서 7명, 배구부는 7명에서 5명, 핸드볼부는 8명에서 5명, 럭비부는 10명에서 7명으로 선발인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전형의 전체 모집인원 역시 123명에서 94명으로 감소했다.

우리학교 축구부는 체육부는 체육특기자 입학정원 감소를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체육부 관계자는

"체육부로 어떠한 지침이 문서화돼

서 내려온 적은 없지만, 교육부

전체의 선발인원을 줄이라는 지침

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축구부뿐

국대는 33명의 선수가 U리그에 참가했다. 이는 지방대학과 비교할 때 더욱 심각한 수치다. U리그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대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하여 참가인원수가 훨씬 많으며 60명 상당의 선수가 참가한 대학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체육부 관계자는 "체육부로 어떠한 지침이 문서화돼서 내려온 적은 없지만, 입학처와 얘기했을 때 교육부 지침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제캠퍼스 입학처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적은 없다"며 "체육특기자 인원감소는 우리학교 체육위원회의 결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성균관대는 체육부 종목 구조조정을 실행한 바 있다. '성균관대 스포츠단'에서 진행한 해당 정책은 성균관대의 5개 단체 구기 종목 중 하위 2개 종목을 정리하고 3개 단체 구기 종목에 예산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

이다. 이에 성균관대 핸드볼부는 해체됐고 농구부는 존폐위기를 겪기도 했다.

2013년 한양대의 운동부 폐지 논란 역시 당시 체육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당시 한양대는 재정난을 이유로 체조, 육상, 유도부 체육 특기생 전형을 폐지하려 결정했으나, 체육인들과 학부모 등

의 거센 항의로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많은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체육부 예산을 감소하던 대학

체육부의 저변이 축소되는 흐름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학교 체육특기자 전

형의 인원감소 역시 ▲체육부 운

영을 위한 재원 부족 ▲프로 진출

후 자퇴로 인한 결원 등 교내외의

의 이익을 위해 입학정원에 큰 변화

명 정도 선발인원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신문의 취재결과,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보도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관계자는 "체육특기자 감소와 관련한 지침은 따로 없었다"며 "2016년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관련 종합대책이 발표되긴 했지만 비리 극복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인 내용일 뿐,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모집인원을 축소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송종국 체육대학 학장은 "인원감소는 시대적 흐름" 성균관대 구조조정 경험해

체육대학 송종국 학장은 "대학 사회 전반에서 체육부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는 체육부의 조정이 있었고, 인원감소가 아니라 대학 자체에서 내려온 적은 없지만, 입학처와 얘기했을 때 교육부 지침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제캠퍼스 입학처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적은 없다"며 "체육특기자 인원감소는 우리학교 체육위원회의 결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성균관대는 체육부 종목 구조조정을 실행한 바 있다. '성균관대 스포츠단'에서 진행한 해당 정책은 성균관대의 5개 단체 구기 종목 중 하위 2개 종목을 정리하고 3개 단체 구기 종목에 예산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

이다. 이에 성균관대 핸드볼부는 해체됐고 농구부는 존폐위기를 겪기도 했다.

2013년 한양대의 운동부 폐지 논란 역시 당시 체육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당시 한양대는 재정난을 이유로 체조, 육상, 유도부 체육 특기생 전형을 폐지하려 결정했으나, 체육인들과 학부모 등

의 거센 항의로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많은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체육부 예산을 감소하던 대학

체육부의 저변이 축소되는 흐름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학교 체육특기자 전

형의 인원감소 역시 ▲체육부 운 영을 위한 재원 부족 ▲프로 진출 후 자퇴로 인한 결원 등 교내외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맞물린 결과



▶ 1면 '우리학교 학생회 횡령논란 흐르며'에서 이어짐
호관대 횡령 사건이 채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대에서도 또 다른 횡령이 발생했다. 전 피아노과 학생회장이 학생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올해 음악대학(음대) 학생회는 학생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학생회 명의의 공용 통장을 개설했다. 각 학과 학생회장은 학생회비를 관리하던 전 학생회장들에게 공용 계좌로 학생회비를 입금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개설된 통장에는 피아노과를 제외한 관현악과, 성악과, 작곡과 학생회비가 입금됐다.

이에 현 피아노과 학생회장은 전 학생회장인 A씨에게 총 4차례에 걸쳐 학생회비 송금을 요구했다.

감사 TF는 이번 횡령을 '재정 운영 방식의 혼란'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작년 12월 26일 2021학년도 2학기 피아노과 학생회비 결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21일 자로 결산을 마친 것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22일부터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현 학생회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것임을 진술했다. 횡령을 한 22일부터 이월 전까지의 공백을 현 학생회장이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감사 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피아노과 1학기 학생회비 15% 차감 ▲당사자 음악대학 학생상법위원회 회부 ▲당사자 사과문 게시권고 ▲제53대 음악대학 학생회 결산 증빙자료 공개 요청 등의 결과를 내놨다.

음대 학생회장 박미현(기악 2019) 씨는 24일 게시한 '제54대 음악대학 학생회장 입장문'에서 이번 횡령 사건에서 불거진 음대 학생회비 재정 운영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 회장은 "이번 횡령 사건은 과 학생회의 재정 담당자나 다른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단독 체제의 특성, 과 학생회비를 학생회장 개인 명의 통장으로 관리했던 문제, 결산 증빙 방식의 혼란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를 통해 음대 과 학생회비 재정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5차례에 걸쳐 38만 9000원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해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A씨가 계좌 한도제한을 인지하지 못한 것과 계좌 비밀번호, 카드, 통장을 분실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A씨는 잠작한 이유에 대해 "이전에 90만 695원만 입금한 상황에서 나머지 재정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상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절차를 추가했고 과 학생회장 보고를 토대로 과 학생회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재정 운영의 개선을 약속했다.

이어 박 회장은 "올해부터 과 학생회비는 음대 명의의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됐으며 재정 담당자인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재정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재정 관리를 위해 예산안 작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절차를 추가했고 과 학생회장 보고를 토대로 과 학생회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재정 운영의 개선을 약속했다.



(사진 김경민 기자)